

이 층에서는 以外에도 金銀기로 彫刻한 骨製鐵이 完全한 모양으로 採取되었으  
며 特異한 것은 아주 堅質의 表面黑色으로 된 潤氣 나는 甕器片이 出土되었다.  
그리고 이 층에서는 木柱類의 木質이 垂直으로 박은 痕跡이 十餘個 있었다. 存  
在狀態로 지금 住居用 木質인지 木柵인지 알 수 없으나 人爲的인 것임에는 틀림  
없다.

以外에 第二層 第三層에서 桃實이 發見되었다.

四、이곳 達城丘陵에서의 定着始發은 最下層에서 發見된 骨角器로 보아 金屬  
器時代에 들어와서 이미 古墳形成以前 社會의 時期로 볼 수 있고 土城은 古墳築  
造時期에 들어와서 築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以上 몇가지 重要視되는 事實을 發見하였으나 平面的 區域의 擴大發掘調査에  
적지않은 制約이 있었기에 下層 그리고 中間層인 第二層에서 發見된 住居址?  
의 樣相을 規明 못하였다.

그러나 三國古墳形成期 以前の 土器編年에 큰 도움을 준 調査가 되었음은 事  
實이다.

### 法住寺 通信 (三)

金 東 賢

基壇 實測은 十月二十日 完了되고 二十一日부터 基壇部 解體가 着手되어 地臺  
받침石만을 除外한 基壇石全體가 二十四日 解體完了되었다.

基壇石 內部の 積心은 調査後 八日間에 걸쳐 解體되었다. 基壇石 解體와 併行  
하여 治木과 治石工事도 進行되었다.

治木은 心柱받침 十字木을 비롯하여 一層包材의 部材復原이 大部分이었고 一  
二層의 扇子椽 마름질이 그 다음의 일이었다.

石工事は 既完成된 新造의 基壇石材 중 上·下面 및 兩側面의 다음질이 재손  
질되어 治石場으로부터 建物周圍로 移動되었다.

基壇 積心 解體중 崔淳雨 指導委員과 黃壽永 教授의 來訪이 있었다. 이때에

論議된 事項은 첫째 舍利壯嚴具의 奉安問題, 둘째 塚갈기 問題, 셋째 基壇 復原  
에 關한 問題였다.

舍利裝具의 再奉安問題는 寺刹側의 意見을 받아들여 反映시키는 것을 原則으  
로 하되 一旦 文財委에 附議시켜 檢討키로 하였다.

寺刹側에서는 이 問題에 對하여 石製 舍利盒과 그안의 壯嚴具를 再奉安할 것  
을 主張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石製 舍利盒內의 銀製 舍利壺는 金製로 交替시킬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시사하였다. 交替되는 一切의 遺物은 寺刹側에서 그 經費  
를 負擔키로 協議되었다.

塚갈기 問題는 一層 平面內의 邊柱와 高柱間의 바닥面에 限하기로 하고 그 施  
工 內容은 再考토록 하였다. 解體時에 出土된 塚의 種類는 四、五種에 이르는  
各種이므로 그 規格은 再考後 決定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基壇 築石에 關한 原來的 示方書內容에는 基壇 全體를 新材로 交替하  
고 舊材는 積心으로 利用토록 되었으나 再用할 수 있는 舊材는 되도록 救濟하여  
使用하도록 하였다.

基壇 築積에 關한 細部內容이 確實하게 決定되자 工事は 急進展되어 十一月  
六日現在 基壇 基礎工事が 完了 段階에 있다.

(監督陣 人事, 金周泰 專門委員과 孟仁在 專門委員이 交替됨 十一月二日宇)  
(二九六八, 十一, 六)